2015년 1월 4주차

■ 연구원 소식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서가제작 및 도서배치, 분류 작업

한국고전문화연구원은 지난해 일시적으로 보류했던 서가제작 작업 및 도서 분류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진취적이고 생동감있는 연구원을 만들기 위해 하태진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 학생들이 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점차 완성되어가는 연구원을 보며 회원여러분들께서 흐뭇해 하셨으면 합니다.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도농상생 프로그램 - '나눔푸드' 설 특판행사 (상품소개 참조)**

나눔푸드는 지난 2009년 한국고전문화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연구원은 나눔푸드와의 협약을 통해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 주민들에게 인문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나눔푸드는 연구원을 통해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회원들에게 판매액 10%의 할인과 판매액 10%의 연구원 기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온 설 명절, 가슴 따스한 나눔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착하고 바른 먹을거리를 나누는 기쁨에 연구원에 재정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문은 설 특판행사 기간 중 연구원 사무국에 연락주시면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설 특별판매행사기간 : 2015. 1. 26(월) ~ 2. 9(월)>

■ 금주 연구원 주간일정

[2015년]

○ 01월 26일 : 주간회의/ 한적자료 이전

○ 01월 27일 : 도서 배치 및 분류

○ 01월 28일 : 도서 배치 및 분류

○ 01월 29일 : 도서 배치 및 분류

○ 01월 30일 : 도서 배치 및 분류/ 전북, 전주지역 신년 모임

○ 01월 31일 : 전남, 광주지역 신년 모임

■ 역사속의 오늘

○ **"1973년 한성호 침몰 ~ 2014년 세월호 침몰" 변한 것은 없었다 - 1973. 1. 25**

: "해경은 허대기만 허댔지. 생존자 구조는 어민들이 했어. 그러고도 못 구한 애들 떠올라. 술 있어야 잠을 잔다더만" "그때 악몽 아직 또록또록. 그때도 과적이야 과적…. 선장은 먼저 탈출하고 정부는 승선자수 오락가락. 배 갇힌 61명 다 죽어버렸제" 이것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아니다. 1973년 한성호 참사 직후 진도 주민들의 생생한 기억이다. 두 선박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의 간격이 있음에도 과적, 기상무시, 선장의 자질, 감독소홀, 인원파악장애, 구조자 제로라는 것은 변한 것이 없다는 그 방증인 것이다. 또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를 덮으려고 고의로 사건을 일으켰다는 의혹이 떠도는 것도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 **의로운 한국 청년의 죽음 - 2001. 1. 26**

: 한국과 일본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고 한다. 지배와 피지배의 역사로 얼룩진 두 나라의 역사 전쟁은 아직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건이 2001년 1월 26일 벌어졌다. 일본에 유학중이던 고려대 이수현씨가 퇴근길에 도쿄의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의 유력 언론들은 대서특필했고, 타인의 일에 무관심한 일본 사회에서 자국인이 아닌 특히 한국인이 일본인을 위해 목숨을 던졌다는 사실이 일본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故 이수현씨의 죽음을 전후로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 한류의 열풍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나친 억측은 아닐 것이다.

○ 통일을 위한 새로운 시작 - 1994. 1. 27

: "유럽에 가서 5개월을 지내는 동안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독일 통일을 보고서 흡수통합식으로 해선 큰일 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유럽통합의 추진은 독일통일과는 달리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정치통합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 화폐통합을 하고 맨 나중에 경제통합을 했는데, 유럽은 경제 통합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후광)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아시아태평양 평화재단은 1994년 1월 27일 현판식과 창립기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아울러 기조연설을 통해 3단계 통일론을 역설했다. 제1단계는 1민족, 2국가, 2체제로 서로의 체제를 존중한 채, 통일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2단계는 1민족, 1국가, 2체제로 통일헌법에 따라 연방대통령을 선출하고 연방의회를 구성한다. 제3단계는 1민족, 1국가, 1체제 2개특별행정복합도시로 통일수도 서울에 중앙정부, 평양과 세종에 각 1명의 총리를 맡는 형태로 국토균형개발과 지방화를 추진한다.

○ 광주를 밟고 미국을 간 전두환 - 1981. 1. 28

: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 동안 광주는 대동세상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면에는 공권력의 진압에 대한 두려움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대동세상의 이상은 열흘만에 짓밟혔고, 이를 발판으로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었다. 이듬해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은 전두환의 방미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미국 레이건을 만나 전두환이 미국의 파트너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각자의 속내가 있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이 들어오고, 1979년 이란 혁명으로 미 대사관이 점령되는 등 세계 전략을 위협하는 사건이 터지자 한반도를 최후의 보루로 지키고자 전두환을 도와줬던 것이다. 한편 한국은 정치적 입지를 위해 방문을 요청했고 미국은 메시지 형식으로 방미를 허락했다. 외교관례상 정상회담은 준비기간이 길게 필요한데 전두환은 초청서한을 받고 열흘만에 방문하였다. 이건 굴욕이었고, 국격을 떨어뜨린 행위가 되었다.

○ 성매매 업소의 안전불감증은 진행중 - 2002. 1. 29

: 군산은 성매매 업소와 관련하여 2개의 아픔이 있다. 2000년 대명동 성매매업소에서 불이 나 여성 종업원 5명이 숨졌고, 2002년 1월 29일 개복동 성매매업소에서 불이나 남성 지배인 1명, 여성 종업원 14명 등 15명이 숨졌다. 당시 2층 철문계단에서 질식사 했는데 사실상 감금상태에 있었고, 각종 각서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다. 두 참사를 계기로 성매매 산업 해체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고, 2004년 3월 '성매매방지법'으로 이어졌다. 법이 제정, 시행된 지 십여년이 지났지만 더욱 강고해진 모습으로 나날이 '지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밖에는 말(馬)이 많고 안에는 말(言)이 많다 - 1637. 1. 30

: 인조반정을 통해 광해군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인조. 당시 대륙의 정세는 청이 흥하고, 명이 망해가는 정세였다. 하지만 인조는 국제정세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였다. 이에 청은 1637년 1월 30일 한양으로 공격해오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전하였으나 결국 패배하여 굴욕적인 강화를 맺게 되었다. 이후 항복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것이 삼전도의 굴욕이다. 우리 정치의 모습에서 당시 주화파와 주전파가 아른 거린다. 민생과 무관한 말싸움만을 일삼는 모습!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도농상생 - 나눔푸드 상품 소개

사회적기업 | 굿즈 | 마이산

고향의 맛, 어머니가 손수 만든 수제유과

녹수청산 유과

사회적기업 NANUM FOOD 나눔푸드

나눔푸드는 2007년 4월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의 자활공동체 2호로 출범하여 외식사업, 홍삼가공사업, 수제유과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눔푸드는 지역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녹수청산 유과는 찹쌀, 콩, 참깨, 들깨, 흑임자깨, 뽕잎은 진안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며 그외에 국내산 재료를 가지고 반죽에서 부터 포장까지 100% 수작업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유과이기에 고향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느낄수 있습니다.

녹수청산 유과는 마이산의 기와 때묻지 않은 청정 자연환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진안이 선물한 맛과 건강, 자연이 주는 감동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www.nanumfood.or.kr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1768-1번지
전화(063)433-7017 / 전송(063)433-9017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더불어 일하며 이익을 만들고 행복을 나누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굿즈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좋은사람들이 만드는 좋은상품' 이라는 의미입니다.

소중한 분들께
사랑을 전하세요.

녹수청산 유과

녹수청산 종합유과 1호(1,5kg)
45,000원
찹쌀유과, 콩유과, 참깨유과, 들깨유과, 흑임자유과, 백련초유과, 뽕잎유과
한지 및 대나무 상자

녹수청산 종합유과 3호(1kg)
20,000원
찹쌀유과, 콩유과, 참깨유과, 들깨유과, 흑임자유과, 백련초유과, 뽕잎유과

녹수청산 종합유과 2호(1,2kg) 32,000원
찹쌀유과, 콩유과, 참깨유과, 들깨유과, 흑임자유과, 백련초유과, 뽕잎유과

녹수청산 일반유과 4호(1kg)
15,000원
찹쌀유과, 콩유과